

‘이루다 사태’로 본 AI윤리와 추진 과제, 교육방향은

“영유아·학생·개발자 등 구분... 생애주기별 커리큘럼 마련”

**과기정통부-KISDI AI 세미나**  
AI윤리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국제 기준 맞게 국제협력 필요  
우리나라 특수성도 고려해야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가 2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일 서울 더케이호텔과 온라인으로 개최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방향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개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윤리 체크리스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이루다’ 사태로 AI 윤리가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영유아,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 AI대학원생, 시민, 개발자 등 대상을 구분하고, AI 윤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정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일 서울 더케이호텔과 온라인으로 개최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정책세미나’

에서 “현재 정부와 공동으로 해외에서 발표된 윤리점검 체크리스트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학계·정부·시민 단체·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AI 윤리 정책 협력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주체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무엇을 위한 건지 목적을 명확화하고 ▲주체의 범위를 개발자, 제

자(관리자), 이용자 중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 기준간 상충 문제는 없는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유럽연합(EU)이 2019년 4월 발표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 선보인 체크리스트인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자체 평가 목록’은 개발자, 구매조달, 경영담당 등 회사의 다양한

구성원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본 권리에 대한 영향을 사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EU에서는 AI가 성별, 민족 등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지,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는 지, 표현, 연대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 등을 체크하도록 했다. 기술적 오류나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이 있는 지 사전에 따져보게 했다”며 “투명성 조항으로는 사람이 아닌 AI와 소통인 지 명확히 알렸는지, 설계과정에서 많은 이해 관계자를 포함시켰는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책무성 감사를 위해 외부 3자를 평가에 포함시켰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MS의 ‘AI 공정성 체크리스트’에서는 구성 단계, 정의 단계, 프로토타입 개발단계, 제품·서비스 개발단계, 출시단계, 향상 단계로 나뉘는 단계별로 공정성을 체크하고 있다”며 “특히, 잠재적인 위험 완화를 위해 시스템 버전을 수정하게 했고, 이 과정이 불가능할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개발 중단까지 고려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방향과 도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 핀란드, 호주의 경우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철학,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등 인문학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내놓은 AI 윤리원칙과 연계해 AI 윤리 커리큘럼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소개했다. AI 윤리의 3대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으로 규정돼 있다.

변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을 위해 AI가 인간의 생명이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개인적 노력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 수준별, 전문가 등 대상별로 구분해 콘텐츠를 차별성 있게 구성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특수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윤정 AI 전문가 echo@metroseoul.co.kr

설 차례상,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21% 저렴

소진공, 4인 기준 제수용품 비교  
시장 25만1844원, 마트 32만265원  
채소는 50%, 육류는 25.6% 저렴

설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6만8000원 정도 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18일부터 22일 사이 닷새간 전국의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다.

소진공이 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5만1844원, 대형마트는 평균 32만265원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1.4%(6만8421원) 저렴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채소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50.6% 싼데 이어 수산물(26.7%), 육류(25.6%) 등도 가격차가 컸다.

제수용품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파는 간도라지(66.3%, 8776원), 고사리

(65.3%, 8443원), 숙주(45.3%, 959원), 쇠고기(탕국용)(39.4%, 1만8883원) 등의 가격이 대형마트에 비해 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대상 27개 품목 중에선 밀가루(중력분), 술(청주), 계란, 밤, 사과(부사), 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전통시장이 저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설 제수용품 가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22만5680원에서 25만1844원으로 10.4% 올랐고, 대형마트는 29만9669원에서 32만265원으로 6.4% 상승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경동나비엔, 강남에 ‘청정환기시스템’ 도입

‘미세먼지 프리존’ 9곳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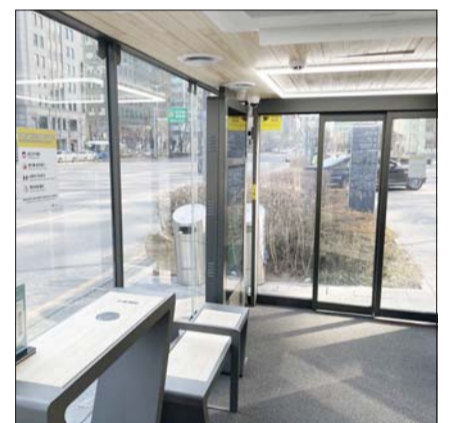
경동나비엔이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신설된 ‘미세먼지 프리존’ 총 9곳에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유동인구가 많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삼성역, 선릉역, 역삼역 등 도로변 버스 정류장에 설치돼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경동나비엔은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 및 운영을 주관하는 시공업체 KIMG와 손잡고 시민들에게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을 선보이게 됐다.

미세먼지 프리존에 설치된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공기청정과 청정환기 기능을 동시에 갖췄다.

공기청정 기능으로 실내 공간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며, 청정환기 기능으로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강남구 미세먼지 프리존 내부 전경.

외부의 새로운 공기는 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걸러 안으로 들어온다. 또한,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저감하는 UV-LED 모듈도 탑재했다. 해당 제품은 일반 가정집,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세먼지 프리존내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하루 종일 많은 이들이 오가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통합공기질 상태를 측정해 기기 스스로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자동운전’ 모드로 운영된다. /김승호 기자

아틀라스랩스

‘스위치 커넥트’ 새버전 공개

인공지능(AI)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음성인식 전문기업 아틀라스랩스는 AI 전화 ‘스위치(Switch)’와 연동되는 웹 서비스 ‘스위치 커넥트(Switch Connect)’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새롭게 런칭했다고 2일 밝혔다.

‘스위치 커넥트’는 AI 전화 모바일 앱 ‘스위치’와 연결돼 음성 녹음은 물론, 실시간 문자화를 통해 전화 데이터를 편리하게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웹 서비스이다.

새로운 스위치 커넥트는 ▲전화 녹음 음성 및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 기능 ▲통화 노트 자동 생성 ▲통화 기록 공유 ▲필터 적용 ▲단축키 등 기능이 탑재됐으며 ▲검색 및 재생 ▲태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 스위치 커넥트 업데이트 버전은 스위치 계정이 있는 사용자라면 웹에 로그인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채윤정 AI 전문가

박세규 기보 상임감사, 최고감사인상 받아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서 영예

기술보증기금이 감사 부문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다.

기보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0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에서 박세규 상임감사(사진)가 ‘최고감사인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는 공공기관의 최고감사인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내부감사, 청렴윤리,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과 성과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체 공공기관과 공유, 공공기관 감사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를 열고 있다.

‘최고감사인상’은 재임 중 최고감사인의 위상 제고와 공공기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감사인과 공직자로서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 자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박세규 감사는 ▲사전컨설팅 감사, 내부변호인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고위직 부패위험 점검체계 도입 ▲미래위험예방 특정감사 등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 등 다양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보 박세규 감사는 “이번 수상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리스크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내부감사 제도와 시스템을 꾸준히 혁신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감사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AI 등 IT 핵심인력 200여 명 채용

코웨이가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글로벌 정보통신(IT) 핵심 인재를 대거 확보한다

대주주인 넷마블과 시너지를 극대화한 혁신 제품을 개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코웨이는 비즈니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강화를 위해 통합 IT 전담조직인 ‘DX(Digital Transformation)센터’를 최근 구축한데 이어 총 200여명 수준의

대규모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IT 서비스 플랫폼의 고도화를 이뤄낼 우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 IT 전 영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코웨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